

배우 김건우, '더 글로리' 손명오를 넘어... "또 다른 숙제 얻었죠"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주목 받아
차기작은 뮤지컬 '빠리빵집' 출연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손명오'(김건우)는 학교폭력 사건의 대표 인물이 됐다. 극중 '문동은'(송혜교)을 극악무도하게 괴롭힌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다. 요즘 연예계에서 학폭 사건이 불거지면 '손명오 같았다'고 비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MBN 오디션 '불타는 트루맨' 촬영이 구설에 올랐을 때도 그랬다. 김건우(31)는 "내가 기분 나빠할 건 아니"라면서도 "하필 내 캐릭터가 (학폭 사건과) 한 쌍으로 묶여 안타까운 마음은 없지 않다"고 털어냈다.

"명오는 살아있는 생물 느낌이 났으면 했다. 연기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엔가 있는 양아치 느낌을 주고 싶었다. 오히려 대사 없는 신에서 나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걸음걸이, 소주 먹는 신, 사랑 깨우는 신, 앓아있는 자세 등을 연구했다. 명오는 부모 없이 자라서 어디로든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살아남으려고 생존의 행동을 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양아치 느낌이 나길 원했다."

이 드라마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10일 파트2 공개 후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오르며 반향을 일으켰다. 김은숙 작가는 김건우를 보자마자 명오라고 판단했다. 오디션 현장에는 없었지만, 영상을 보고 '이 친구다'라고 생각했다. 김건우는 명오보다 '전재준'(박성훈)이 더 끌렸으며 "통쾌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재준도 잘 할 것 같

다고? 아, 그럼요"라고 웃었다. "처음 극본을 봤을 때 '명오가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오히려 동은의 계획에 잘 당해서 바보처럼 느껴졌다. 캐릭터에 애정을 가져야 해서 계속 보니 귀엽기도 하고 순수한 느낌도 들었다"고 짚었다.

미국 이종격투기선수 네이트 디아즈를 참고해 캐릭터를 만들었다. "한 달 동안 네이트 디아즈 영상만 봤다"며 "악동으로 불리는 데, 초점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인터뷰할 때도 대답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귀띔했다. "그 외 캐릭터 설정은 스타일리스트팀에서 극본을 토대로 준비해줬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며 "머리는 원래 짧아서 붙였다.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양아치스러운 몸을 만들었고, 3kg 정도 살을 뺐다"고 설명했다.

파트1 공개 당시 명오의 생사 여부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다. 파트2에서 명오는 재준 편집집을 직원 '김경란'(안소유)이 내리친 술병에 맞아 죽었다. 애초 명오는 연진에게 '윤소희 살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 연진의 술병에 맞아 쓰러졌지만, 살아있는 상태였다. 경란은 명오가 도움을 요청하자, 과거 자신을 수차례 성추행한 기억이 떠올라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갈 때도 화려하게 가서 결말은 만족했다. 원래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었다. 신마다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다"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

대치 역량이었다"고 돌아봤다. "명오의 가장 큰 악행은 성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이다. 16부에서 경란한테 추행하는 신을 봤을 때 '여기까지?' 한다고 싶어 놀라기도 했다.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다. 가장 악역은 단연 '박연진'(임지연)이다. 연진은 살인을 해 범범자 아니냐. 명오는 연진에 비하면...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난 연진이 가장 나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손명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냐고? 정신 차리고 타투도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똑바로 살아라. 아직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반성하고 착하게 살아라."

명오가 전화로 스튜어디스 '최혜정'(차주영)에게 고백한 신도 화제를 모았다. 혜정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집어던질 정도로 싫어했다. "명오는 혜정을 완전 사랑했다. 연진과 재준, '이사라'(김희아)는 같은 무리, 나와 혜정은 또 다른 무리였다. 친구지만 크게 두 그룹이었고, (세탁소집 딸인) 혜정은 같은 계급으로서 동질감이 있었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마음이 고백하는 계기가 돼 '어차피 한국 틀 건데 틀 거면 너랑 뜨고 싶다'고 한 것"이라며 "요즘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결혼하자'고 댓글을 다는 분이 있다. 해외 본인데, 인상 깊게 보고 있다"고 웃었다.

사실 김건우는 더 글로리 캐스팅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데뷔작인 드라마 '쌈 마이웨이'(2012)에서 '고동만'(박서준) 라이벌 '김탁수'로 눈도장을 찍었지만,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쌈 마이웨이'가 재평가되며 알아보고, 전작을 찾아보는 팬들도 늘고 있다. "신기하다"며 "tvN 작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유튜브에 내 연기 모음집 영상도 생겼더라. 단박



극 '낮선 계절에 만나'(2022)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그3 때 친구 따라 연기학원을 가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친구가 드라마 '신병'(2022)에서 활약한 이상진이다. 2012년 삼수를 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 수석으로 입학했다. 데뷔 때부터 한술밥을 먹고 있는 양세종이 대학 동기다. 한예종 출신이 승승장구할 때 자극도 받았을 텐데 "응원하는 마음이었다"며 "질투를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더 글로리를 만나기 전 슬럼프도 있었고 조금 힘들었다. 어쨌든 선택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자존감이 세서 버텼다. 나에 관한 믿음이 괜히 크다. '슈퍼스타가 될 거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쓰임이 있고, '아직 보여줄게 남

아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접는 건 '자존심 상하지 않나' 싶었다. 내가 출연한 작품이 다 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반응이 없을 때 안타깝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김건우는 5월13일부터 뮤지컬 '빠리빵집'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 글로리가 흥행해 차기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소극장 작품을 선택해 의외였다. "왜 갑자기 뮤지컬이야?"라고 하는데, 정말 하고 싶었고 작품이 좋아서 택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 반, 동경하는 마음 반이었다. 빠리빵집은 가족 이야기를 다뤄 굉장히 따뜻하다. 착한 아들 역"이라며 "더글로리 이후 출연을 결정했다. 학교에서 무대에 서본 경험을 비춰 봤을 때 희열이 있다. 같이 호흡하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효리, 독보적인 아우라...패션 화보 공개 가수 이효리가 29일 화보를 공개했다.이번 화보에서 이효리는 히메켓 헤어스타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프렌치식 보헤미안 감성을 표현했다.

차선우, 로코로 돌아온다... '시작은 키스'



그들 'B1A4' 출신 차선우가 로맨틱 코미디 물로 돌아온다. 차선우는 KBSN 웹드라마 '시작은 키스'(가제)에 출연한다. '백일락'(이현주)의 오래된 친구 '황구'다. '황간지'로 불리는 품쟁이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소꿉친구 일락에게 충성을 다한다. 농구부 일장 출신 '김뽕'(김종현)과 삼각관계를 형성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日 레코드협회 세 번째 '트리플 플래티넘'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레코드 협회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추가했다.

29일 일본 레코드 협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한 싱글 '버터(Butter)'에 수록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누적 3억 회 이상 재생돼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2023년 2월 기준)을 획득했다. 지난 1월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던 '퍼미션 투 댄스'는 약 1개월 만에 누적 재생수 1억회를 추가했다.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트리플 플래티넘' 작품이 됐다.

'퍼미션 투 댄스'는 '춤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 없이 마음껏 춰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쾌하고 신나는 댄스 팝 장르의 곡이다. 2021년 7월24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던 이 곡은 여전히 인기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8월 발매된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에 수록된 '아이엠 파인(I'm Fine)'이 누적 5000만 회 이상 재생돼 '골드' 인증을 추가했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재생 횟수에 따라 실버(3000만 회 이상), 골드(5000만 회 이

'퍼미션 투 댄스', 누적 3억 회 이상 재생



상, 플래티넘(1억 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 회 이상)로 구분해 메달 인증하고,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한다.

뉴스

엔믹스 '엑스페르고', 63만장... '자체 초동 기록' 경신



그들 '엔믹스(NMIXX)'가 첫 미니 앨범 '엑스페르고(expérgo)'로 자체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 2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매된 엔믹스의 '엑스페르고'는 한터 차트 기준 초동 63만811장을 기록했다. 이로써 엔믹스는 데뷔 싱글 '애드 마레

5월부터 첫 해외 쇼케이스 투어

(AD MARE) 22만7399장, 싱글 2집 '엔트워프(ENTWURF)' 44만 2207장 초동 기록에 이어 또 도약했다.

음원도 호성적을 거뒀다. 지난 13일 선공개된 엔믹스표 믹스팝 '영, 덤, 스투피드(Young, Dumb, Stupid)'는 25일 자(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드 바이 트위터' 차트 1위에 올랐다.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크 디스(Love Me Like This)'는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 케이팝 주간 차트(3월 17~23일) 정상을 차지했다. 또 멜론 톱 100,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사이트 일간 차트에서도 꾸준한 순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강세다. '영, 덤, 스투피드'가 14일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크 디스' 뮤직비디오 역시 해당 차트에서 21일과 22일 기준 1위에 올랐다. '러브 미 라이크 디스'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조회 수 4618만 회로 5000만 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엔믹스는 오는 5월부터 첫 해외 쇼케이스 투어 '나이스 투 믹스 유'를 연다. 5월 2일 시애틀, 4일 산호세, 5일 로스앤젤레스, 8일 댈러스, 9일 휴스턴, 12일 애틀랜타, 14일 워싱턴 D.C., 16일 브루클린까지 북미 8개 도시와 6월 4일 태국 방콕,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8일 대만, 23일 싱가포르, 30일 필리핀 마닐라 등 아시아 5개 지역에서 총 13회 규모로 열린다.